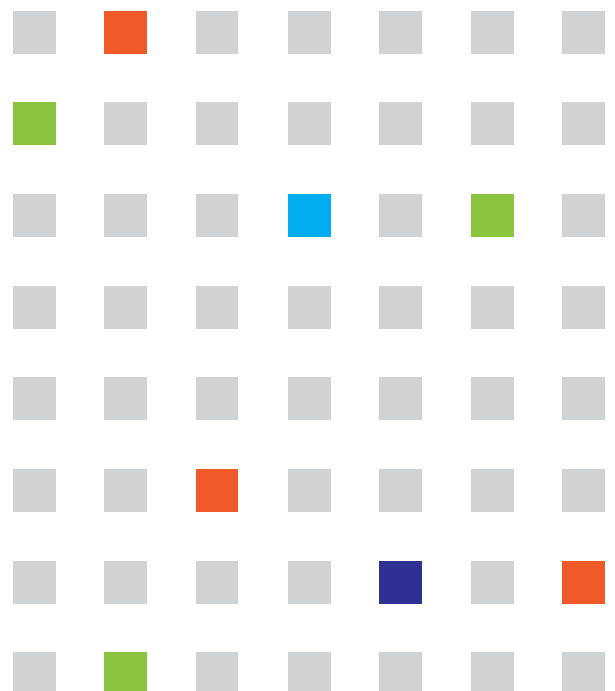


2022년 12월 AML REPORT

1. 자금세탁방지(AML) 동향
2.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법 및 유형



(1) 금감원, 신한은행에 AML 관리 체계 개선 요구

- 금융감독원은 ‘외환 이상송금’ 사태 발생 직후 실시한 신한은행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.
-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식별, 고객확인, 위험평가를 위한 별도 조직과 전담인력, 전산 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았다. 이에 금감원은 **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배치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**했다.
- 또한, **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, 고객 예치금 잔액 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**했다.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받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회계법인 실사자료 징구를 정례화하는 등 예치금 잔액 대사업무 신뢰성을 높이라고 했다.
- 또한,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점검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개선사안으로 지적됐다. 신한은행은 내부 규정으로 국외점포 임점(직접) 점검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러한 내부규정을 개정해 **AML개선이 미진한 국외점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점점검으로 실시**하라고 했다.
- **외환거래 시 수취인이 금융제재(Sanctions)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제재 검색 정보 확대 점검 인력 보강도 요구**했다.
- 금감원은 고객확인 재이행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해 이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. 또 **외국인 고객확인 시 여권 외 증빙서류에 대해선 전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증빙서류의 전산 등록을 필수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**하라고 했다.

➡ 시사Point :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담 인력 규모 및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아주 엄격한 잣대로 검사하는 추세!

(2) 관세청, 가상자산 집중 단속 중

□ 관세청이 가상자산 급등과 관련해 2021년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.

□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, **관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불법외환거래 단속으로 1603건에 12조5664억원을 적발했으며, 적발 유형이 가장 많은 경우는 외환 사범*이다.**

* 외환사범 : 무등록 외국환 업무(일명 환치기)(제8조)와 지급 수령 방법의 신고(제16조) 위반 등

□ 특히, 2020년 이후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, 적발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**가상자산 급등에 따른 불법 시세차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**라고 설명했다.

☞ 시사Point : 불법 해외송금 관련 감독기관의 단속이 집중되므로, 외환송금 업무 시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 이행 필요!!

(3)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, 자금세탁 혐의로 美검찰 기소되내

□ **미국 검찰이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경영진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**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FTX 파산사태보다 더 큰 후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.

□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**미국 검찰은 2018년부터 자금세탁 및 불법 송금 혐의로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(CEO) 등에 대해 수사**하고 있다,

☞ 시사Point :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!!

(1) 대체송금시스템(Alternative Remittance system)

- ◎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고객을 대신하여 국가간에 자금이나 다른 형태의 가치재를 이전하는 것으로 소위 ‘환치기’
- ◎ 주로밀수, 재산도피, 도박, 횡령자금의 은닉 등에 많이 이용되며, 환치기 업자는 외환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 송금회사 연계

(2) 차명계좌

- ◎ 자금세탁 범죄 관련계좌의 예금주나 자동차, 건물 등 재산의 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등록하여 실소유자의 소유관계를 은닉하기 위함
- ◎ 신뢰할 수 있는 가족, 친구 등의 명의를 이용하며, 제3자 스스로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

(3) 도박거래

- ◎ 명백한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가 없어도 최근에 얻은 재산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음
 - ※ 도박장에서 본인들이 획득한 것으로 위장
- ◎ 범죄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실제 도박을 하여 일반적 승률 정도의 금액을 획득하여 도박을 통한 수익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음

(4) 현금거래

- ◎ 거액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수개의 금융기관 또는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이면서 지금도 가장 성행하는 방식
※ 출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움
- ◎ 최근 5만원권 등 고액권이 유통되면서 과거에 비해 현금이 이송이 용이하여 다시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

(5) 위장기업 혹은 유명사업체

- ◎ 자금세탁 행위자가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그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처럼 가장하는 방법
- ◎ 범죄수익을 사업체의 수입으로 가장시켜 은행에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상 자산관계를 은폐할 수 있음(카지노)
- ◎ 자금의 실 소유주가 1인 주주 혹은 지배 주주로서 전위 사업체를 통한 자금을 직접 통제할 수 있음

(6) 무역거래

- ◎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결제가격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탈세, 재산해외도피 또는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자주 이용함
- ◎ 실제 수입가보다 고가로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문서상으로만 수입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